

학교생활

아이를 괴롭히던 학생과 같은 반에 배정을 받았어요. 반 변경이 가능할까요?

중2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같은 반 친구로 인해 아이가 무척 힘들어했어요. 신체적 폭행을 가하거나 눈에 띄게 괴롭히진 않았지만 한 학생의 조심성 없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학년 반 배정을 확인하니 그 학생과 같은 반이 됐다며 아이가 집에 돌아와 엉엉 울더라고요. 봄방학 기간 중이라도 학교에 건의하면 반 정정이 가능할까요? 1년간 괴로울 생각을 하니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어쩌면 좋을지 난감합니다.

원미연(46·서울 송파구 잠실동)

A

다음 학년이 시작되는 3월 전에 담임 교사에게 요청하면 반 정정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의 사례와 같이 한 반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학우와 다음 학년 동일 반에 배정 받았을 경우 학교 측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 정정이 가능합니다.

대구 상인중 구현희 교사는 “학교는 학생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니 만큼 학급에서 급우들 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 담임 교사는 힘들어하는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학년의 반이 정해졌더라도 언제든지 정정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단, 반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3월 전에 담임 교사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더라도 반 정정은 가능하지만 새 학년의 수업이 일정 기간 진행됐다면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기에 해당 학생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MORE TIP

간혹 학부모 중 ‘반을 정정해달라고 담임 교사에게 요구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로 낙인찍히지 않을까?’고 고민하며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 교사는 “그런 일로 학생에게 편견을 갖는 교사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친구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것이지요. 자녀가 마음 편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il.com



입시

정규 동아리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고1 때 아이가 원했던 정규 동아리에 가입을 못했어요. 자율동아리는 학생부에 거의 기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관심 분야에 맞는 정규 동아리를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주위에 물어보니 학생이 정규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정규 동아리는 학교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거라 학생은 그중에서 선택, 지원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무엇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정수민(46·서울 강북구 미아동)

A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년말이나 학년초에 정규 동아리 개설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내에 인원을 모집하고, 학교 규정에 맞춰 개설 희망 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다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감은 “교원이 60여 명인 학교의 경우 원로 교사, 보직 교사를 제외하면 동아리 개설 가능 교사는 50명 남짓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정규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 교사 1인이 1개의 동아리만 지도 가능하다. 정규 동아리 개설 희망 신청 결과 150개 동아리가 개설을 신청했다면 소수의 인원이 희망하는 100개의 동아리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정규 교육과정 편성 시 소인수 과목과 마찬가지로 동아리도 여러 여건을 고려해 학생의 수요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도 교사 수의 제한, 활동 장소에 대한 제한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주지 않으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MORE TIP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가 허가하는 형태이지만 정규 동아리는 수업 시간 내에 운영되므로 학교 교육 계획의 동아리 기본 계획을 따라야 해 학교 상황에 따라 여러 제약을 받습니다.

서울 배명고 강재희 부장 교사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한 학교에서도 최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신규 동아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절실함을 호소하면 좋다. 새로 부임하는 교사도 있고 다음 해에도 정규 동아리 개설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잘 계획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면 개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